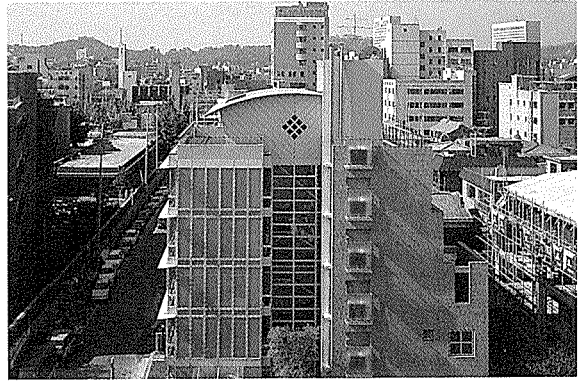


## 피질(皮質)

### The Cortices

박길룡 / 국민대 건축학과 교수  
by Park Kil-Yong



일건사옥 전경

한 건축가가 자신의 전용 사무소 빌딩을 짓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이 된다. 그것은 마치 건축주가 구겨서 건네주는 것이 아닌, 순백의 종이 한 장을 작가가 마련하고 스스로 그리기 시작하는 일이다. 거기에는 건축주의 몫이 해도,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도 벗어나는 아주 자유로운 임의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작가의 자의성을 좀더 여유 있게 읽으려 하는 것도 그러하다. 비록 투자에 대한 압박은 여기에서도 불가피할지 모르나, 그의 건축경제를 듣게 될지 모른다. 거기에서 그 건축가의 건축생산에 대한 이해를 아는 것도 엔지니어링이 건축 생산 문제까지도 스스로 장악하여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한 건축가가 사고하고, 말하여 온 개념의 아주 신빙성이 깊은 현현(顯現)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최관영은 한국 건축계에서도 자기 개념을 말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작가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건축교육에도 출강하며, 한국건축가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역할과 언론도 넓은 건축가이다. 그래서 이 사옥의 크리틱은 그의 생각부터 읽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50대 중반의 건축가로서 최관영 역시 초기에는 모더니즘에 경도되어 있으며 표현보다도 현실적 합리성에 젖어 있었다. 그의 조형은 후기에 들어 점차 억양이 강하여지고, 정서를 깊이 개입시켰다. 그러한 특질을 모든 건축에 통하는 일관성으로 읽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 사옥은 가장 정확한 그의 건축 개념의 단면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체적인 구조에 있는 사무소에서 생산되는 디자인 경향이 모호하기 쉬운 개연성에 비해 (일건 C&C)의 디자인은 그 나름대로 개별성이 비교적 분명하다. 그것은 아마 적절한 조직 규모와 대표 건축가의 성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 건축가의 카리스마가 사무소의 디자인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일건 C&C)의 디자인을 이끄는 최관영과 정동명의 듀오 체계도 이 독자성의 이해에 유효할 것이다. 기술적 해결과 미세(微細) 디자인을 놓치지 않고 결부시키는 능력도 (일건 C&C) 디자인의 질량을 높이는 주요한 인자

가 된다. (일건 C&C)의 건축은 금속성의 감성만큼이나 차가운 큰길 타워(1993), 서울방송(SBS) 등촌동 공개홀(1993)이 있었으며, 신정동 여성의원(1996)에서는 밝고도 풍부한 정서도 보였다. 사실상 그 동안 일건건축의 디자인은 어떤 항성(恆性)으로 가능하기 어렵다. 대신 장소와 조건에 충실한 경우마다의 의사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 사옥은 비슷한 시기에 설계된 신정동 여성 의원과 비슷한 플롯으로 보인다. 전체의 스케일에서 대지가 비슷하며, 조형의 구문법도 그러하다. 다만 의원건축이 작은 셀 단위들이 구축된 결과인데 비해, 이 사무소 건축의 공간은 덜 활발하다. 이 건축이 있는 동네는 새 서울의 일상성이다. 주택지로 도시계획된 서초동은 점차 소형 사무소와 도시의 서비스 기능으로 전이되어 간다. 아직도 몇 채의 주택이 버티고 있지만 그의 존립은 오래지 못할 것이다. '불법 주차 견인'의 경고가 보이며 벌써 재건축이 벌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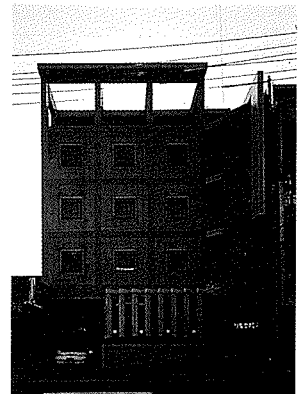
대지가 갖는 아주 큰 행운은 그 전면을 건너 학교 운동장으로 경관을 트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면의 트임은 앞으로 주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꽤 지속가능한 요인이다. 대지의 폭을 14m로 하는 제한된 전면 폭에 대해 깊이가 있는 대지이다. 정면은 햇빛이 밝은 남향이다. 이 정면에는 지하 주차장의 램프와 그의 머리 높이를 해결하기 위해 슬래브가 들어올려져야 하고, 현관과 점포의 레벨이 몇 개의 계단 위에 설정됨을 불가피하게 한다. 아니 이러한 지반층 전면의 복잡한 요소들은 불가피한 것이기보다는 지하 공간의 체적 효율을 위한 것이다. 지반층에 상업이 들게 될 것이고, 그 이상 층의 사무소 공간과 최상층의 임원실로 구성되는, 비교적 단순한 프로그램이다. 사실상 사용자인 설계 종사자의 공간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프라이드를 위한 기대가 투영될 수 있다. 설계사무소의 공간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 사무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공공 영역에서보다도 거주 영역에서 특화를 의도한다. 특히 한 조직이 갖는 내·외의 지적 교류와 보유하고 싶은 생활문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이 사옥의 건강한 프로그



큰길타워



SBS 등촌동 공개홀



신정동 여성의원

램이다.

좁은 측면의 접근로를 따라 들어가면 대나무가 있는 포켓이 형성된다. 비록 이 공간의 체적은 충분한 것이 아니지만, 투명한 계단실과 엘리베이터가 위요하는 형국이므로 정감이 있는 공간이다. 이 투명성의 효용은 상층부까지 계속되며, 밤에도 아름다운 집을 만든다. 전체적으로 공간 체적이 당장 긴박한 과제가 되면서, 한 건축사무소의 공간적 실험이 벌어지리라는 기대는 접어두어야 한다. 접근공간과 공용공간은 일반적인 빌딩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색한 정도이다. 소규모 빌딩의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공적 영역의 스트레스는 더욱 심하다. 특히 이 건축은 전용 사무소의 용도이기 때문에 공공의 접촉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이유로 이해된다.

공간의 내역에 비해 이 건축은 외관의 수사(修辭)가 매우 활발하다. 외관을 이루는 구성에서 두 개의 측면은 내부의 내용과 인접 대지의 관계 때문에 개연적으로 달라진다. 사선제한의 조건에 따라 뒷마당이 생기며 점층적으로 삭감되는 후면이 접어 올라간다. 그리고 아주 밝은 투명성으로 파사드의 개별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그것은 재료의 혼성과 함께 조형되므로 훨씬 구성적이게 되었다. 파사드마저 다른 두 가지 색조의 유리가 구사된다. 후면의 재료는 배후의 건축들이 벽돌조의 주변 주택의 색조와 동조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어차피 그 주택들은 앞으로 오래 지속 가능한 것들이 아니다. 오히려 전면의 명징한 금속과 유리에 대립적 효과로 보인다. 여기에 (일견 C&C) 디자인의 요체가 있다. 그들은 건축의 요인들을 가급적 처음부터 나눠 놓고 다시 모은다. 차가운 명징성과 축축한 질감, 최대한 가볍고 싶은 내·외부의 디테일들과 메싱, 날카롭지만 이완적 요인을 함께 둔다.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일관성을 따라 변용 되는 것은 아니다. 어눌한 조형의 숨씨로서는 효과있게 결과될 수 없는 것이며, 요소마다의 정성이 필요하다. 파사드에서도 기준층의 평면적 내용으로 보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던 구성을 크게 3분하고 있다. 그 분할은, 작가는 공간의 방향을 틀기 위한 의도로 말하

지만, 어떤 원칙으로써 보다도 미적 쾌감을 위한 구성적 구도이다. 이러한 혼성은 자칫 수다스럽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이렇게 건축적 수사에 깊이 집착하는 것은 몇 가지 관심에 연유된다. 우선은 표제(表題)로써 분명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이다. 한 건축의 독특한 수사는 그 동네에 활기를 북돋게 할 것임을 의식한다. 특히 주변이 어눌할 경우 더욱 빛난다.

도시의 파사드는 가로의 장치일 수도 있고, 여백을 포함한 공간일 수도 있다. 마침 이 건축이 있는 가로는 간선을 벗어나 있어, 그렇게 강력한 도시성을 요구하는 위치는 아니다. 대신 6층의 높이는 그렇게 만만한 높이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파사드의 분할법은 시각적으로 유효하다.

건축의 조형을 이루는 것은 여전히 구법, 공간, 형상이다. 언제부터인가 현대건축은 이들 요인을 분해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구조는 조형자체보다도 공간적 체적을 위한 수단으로 물러선다. 공간과 형태의 일의성을 기대하기 보다는 그 양자가 내연성과 외연성을 따로 책임지기 때문에 독립적이다. 자연히 형태는 수사에 기울어진다. 이러한 분화의 현상이, 의사를 다채롭게 하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도시의 경관을 피질(皮質)의 연속으로 만들기도 한다. 전체의 조형에서 분리되어 덧대어진 파사드는 확실히 조형의 임의성을 보장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피질이다.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로 이해하고자 하면 요소들의 비통합적 수단이 더 확실하여진다. 우선 평면의 조닝이 구조를 따르게 하였을 것이고, 입체화된 건물의 윤곽을 얻는다. 이 윤곽에 옷을 입히는데, 그것은 달거나 걸치는 것이다. 재료의 선택이 훨씬 자유로워지는 것은 더 이상 재료가 구법이나 공간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로움이란 사실상 르 꼬르뷔지에의 도미노 스켈톤 이후 큰 진전은 아니다. 그리고 보면 모더니즘 이후 건축은 단지 수사만이 좀 더 화려하여 졌을 뿐이다. 그것이 고딕과 르네상스 이후에 더 진화된 것인가.

어차피 도시건축의 개체들이 도시의 연속적

파사드를 이룬다. 건강한 도시문화의 표제이면서, 환경적으로 주변이 주목할만한 동기를 주는 것이 도시건축의 사회성이다. 이 건축이 있을 동네는 어떤 건축적 컨텍스트의 단서도 찾기

어려운 무조의 경관 속에 있다. 그래서 동네는 이 건축을 가질 수 있었던 행운을 알며, 건축이 주변에 파급시킬 도시건축 조형의 빛나는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It is intriguing to see an office building designed by an architect for his own use. There are no pack of requests from the client: it is a condition of *tabula rasa* completely left to the choices of the architect himself. It can avoid the tiresome process of communication with the owner. Instead, he is left with enormous amount of freedom. This is why it is correct to comprehend an architect through the work where he is himself the client. Economical concerns still exist, only to provide a chance to understand the architect's strategy on the economics and production of architecture. It could be said that it is a work where the architect's thoughts and concepts are most correctly reified.

Choi Kwan-Young is one of those few Korean architects who has a voice and a concept of his own. As an active practicing architect also participating in architecture education and various social events of th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he is well considered an architect of depth. This essay on the Il-Gun C&C Office begins with the insight on architect Choi's concepts and ideas.

Choi, now in his mid 50s, from his early days, just like everyone else, was preoccupied in Modernism and valued realistic logics over personal expressions. But later he put more and more emphasis on forms which mirrored his need to express himself. This cannot be seen as a constant feature of his complete works, but this office, where he is the client, clearly shows a section of his current architectural thoughts.

Whereas the usual design works from architectural firms show ambiguities and scant probabilities, the ones by Il-Gun C&C relatively present crisp individual qualities. This may be due to the proper size of the firm's organization and the character of the head architect. In some firms, the charismatic taste of the head architect rules over the whole work; However, the two executives of Il-Gun C&C - Choi Kwan-Young and Chung Dong-Myung do not. This, along with their technological approach and

the specific care for details, form the overall quality of the firm's works and projects. The metal cold KunGil Tower(1993) and SBS DungChon Open Hall(1993), the bright and endearing ShinJung Woman's Clinic(1996) are results of their faithful design in accordance with specific site conditions.

The Il-Gun C&C Office contains a similar plot to the ShinJung Woman's Clinic, which was design in almost the same period. The overall scale, the site, the architectural vocabularies all share resemblance in them. But whereas the Clinic is composed of little shell units, the spaces of this Office are more dynamic. The site is where the banality of the new Seoul can be found. Initially conceived as a housing area, it gradually made accommodations for small offices and urban service facilities. A few existing housings will soon be replaced by these non-housing functions.

The site is gifted with the view towards the field of a nearby college that is unlikely to be ruined by any redevelopments. The site is narrow and long, 14 meters in width, with its front, connected to the road, directly facing the s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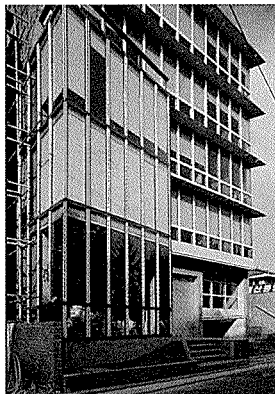
This front contains the ramp going down to the underground parking spaces, the slab that has to be uplifted for the automobiles to pass under, and the entrance to the building and the ground floor's shop. This enables the efficient use of the underground spaces.

The program is rather simple: The ground floor stores a shop, and the above are the offices spaces, with the exception of the top floor which is reserved as the closet for firm employees. The spaces for the employees do not merely concern function; they are reflections of their self-esteem.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private spaces, since every collective has an intellectual way of communication and a living culture of their own. These are the 'healthy' parts of the office.

A narrow approaching road to the office links to a pocket of bamboos. This area is far from



일건사옥



일건사옥



일건사옥

spacious, but enclosed by the transparent staircase and the elevator, it presents a certain warmth. This transparency connects itself all the way to the top, and it glamourizes the building especially at night.

For an office, any kind of office, the primary concern is to acquire as much office space as possible. It is not an area where experimental plays of spaces can be expected. The entrance and the public spaces are truly scanty. Since it is a small office building, constraints fall even harder upon the composition of spaces.

These shortage of public spaces is compensated by the ornate rhetorics of the exterior. The two sides of the exterior inevitably differs from each other owing to their diverse content and the neighboring site condition. The limitations from the road forms a garden at the rear and derives the set-back of volumes on the top of the building. A bright transparency emphasizes the individuality of the facades. They are all the more compositional since its effect is further enhanced by the different uses of materials. Two distinct colors of windows also separate the parts of the facade.

The materials used on the rear side could be interpreted as corresponding to the adjacent red-brick housings, but one should think further that the housings will not be there for long. It is rather to present a sharp contrast with the front's steel and glass. This is where the striking characteristic of the design of the Il-Gun C&C can be found. They fragmentize the elements of architecture from the beginning, and then reconstruct them. Cold lucidity, damp materiality, the detailing and masses deprived of weight as they possibly can are all coexisting in their works. This requires specific care for each elements. Any unskilled attempts to order these diversities are bound to end up in an uneasy design.

Looking at the main plans, the facade could have been one big plane; Instead, they are devided into three parts. This breakup can be read as the architects intention to rotate the orientation of spaces, but it is actually aims for aesthetic ends. These mixture, to one's disappointment, sometimes fall into loquaciousness.

These obsessive attachment to rhetorics can be viewed from a few stance. First of all, it is a gesture to form its own sense of identity. A characteristic rhetorics

of an architecture can cheer up the whole neighboring town, especially the ones with a dark atmosphere.

The facades of the city are either instruments of the boulevards or blank spaces.

The site of this offices is slightly distanced from the main road, so it is not where a strong urban context is required. But the total floor of 6 are not a small scale of a building. The divided facade is effective in this sense. The form of architecture are composed of structure, space, and figure.

Contemporary architecture has begun fragmentizing these elements. In other words, structure has retreated from actively composing a form to simply building spatial volumes. Space and form do not meld into a single entity; They separately reify the connotations and denotations of architecture. The form, as a result, relays on rhetorics. These fragmentation can bear fruit in the layering of meanings, but ultimately convert the facade of the city into a succession of cort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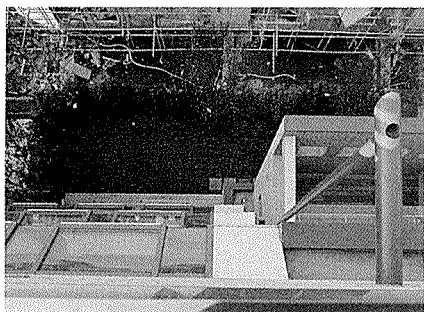
The 'attached' layer of facade can provide enormous freedom in its composition, but, at the end, nothing but a cortex.

If we understand the process of designing, the ununified method of fragmentizing becomes more evident. The zoning of plan sets the structure, which in turn forms the three dimensional volume of the building. The clothing of this volume follows. It is clothing; To add, to cover. The freedom of choice in materials comes from its independance from structure and space.

This so-called freedom is not so much different from that stated by Le Corbusier, with his Dom-Ino skeleton, at the early 20th century. Architecture after Modernism, has only been furnished with a more graceful rhetoric. Can it be affirmed, without doubt, that this is an advance from the Gothic and Renaissance architecture?

The individual buildings collectively form the facade of the city. They present the healthy culture of the city. It is socially active as it provides a focal point to its surrounding environment.

The office of Il-Gun C&C is located in the absence of any architectural context. The town is fortunate to have such an architecture. May it mark the beginning of the town's transition to a beautiful form of urban architecture.



일건사옥



일건사옥



일건사옥